

# KNSI REPORT

컨퍼런스

<제30회 코리아포럼(전문가좌담회) 녹취록>

## □ 북중 정상회담 평가와 6자회담 전망 □

일시 : 2010년 5월 10일(월) 09:00-11:00 / 장소 : 코리아연구원

- ▶ 사회: 이정철(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 송실대 교수)
- ▶ 토론: 이희욱(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창현(코리아연구원 자문위원/ 민족21 주간)

● 주최: 코리아연구원, 한겨레신문

**KNSI**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Korea National Strategy Institute

※코리아연구원(원장 박순성)은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통합 부문에서 정책대안 및 국가전략을 제시합니다. 전화(02-733-3348, knsi@knsi.org) 또는 홈페이지(www.knsi.org)에서 코리아연구원을 후원할 수 있으며, 후원회비 및 기부금은 기획재정부의 공익성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정철:** 북중 정상회담에서 5개항의 합의가 나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첫째, 고위층 교류 지속입니다. 둘째, 전략적 소통의 강화. 양국은 수시로 혹은 정기적으로 양국 내정 및 외교에서의 중대문제와 국제 및 지역정세, 국정 운영경험 등 공통관심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의사소통. 셋째, 경제무역 협력 심화. 넷째, 인문교류 확대. 다섯째, 국제 및 지역 문제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더욱 수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코리아연구원 전문가 좌담회는 우선, 이번 합의 자체를 중국의 건의라고 볼 것인지, 북중 간 합의인지, 또는 합의 자체에 대한 의미 등에 대해 큰 틀에서 정리해보도록 하고, 두 번째로 이번 합의에 이르기까지 중국 측의 논쟁과정, 북한 측 논쟁과정, 북중 간 논의 등을 설명해주셨으면 한다. 그리고 5개항 중에 조항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나 특이사항이 있으면 설명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북중 관계 전망 부분에서 6자회담이나 한중 외교 갈등설을 포함해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먼저 북중 정상회담에서의 5개항의 합의가 나왔는데, 이번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과 배경, 그 의의를 말씀해주시죠.

**이희욱:** 저는 일단 이번 5개항에 대해서 ‘합의’ 라기보다는 ‘후진타오의 건의’ 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본다. 물론, 김정일 위원장의 해석에서 좀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여태껏 북한 지도부가 중국을 방문 후 ‘의미가 있는 방문이었다’ 고 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온 적은 없었다. 따라서 이번 5개항은 미래의 북중관계에서의 일종의 준칙을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중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도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그보다 훨씬 심화된, 북중 간 전략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북한이 이에 합의한 것이라고 본다.

**정창현:** 건의라기보다는 북중 간 ‘합의’ 쪽에 가깝다고 본다. 공식발표문에 김정일 위원장이 전적으로 동의했다는 표현이 있고, 로동신문 사설에 쌍방 간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했다는 표현이 나온다. 견해의 일치를 봤다는 보도를 봐서, 5가지 항목에 대한 약간의 조율이 있었고, 이를 중심으로 북측이 수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북중관계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두고, 새로운 버전의 북중관계의 방향이 마련된 합의라고 보인다. 2월에 왕자루이 대외연락부장이 북을 방문하고, 김영일 국제부장이 중국을 방문해서 이러한 내용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정철:** 상식적으로는 중국 쪽이 합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북한 쪽이 건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들의 평가가 약간 엇갈리는 거 같다.

**이희욱:** 중국은 용어를 사용하는 데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한다. 정상회담 과정에서 중국이 몇 가지 준칙을 제안하고 북한이 이에 대한 합의를 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표현들을 보면, 김정일 위원장이 건의 밖의 이야기(5개 건의 안에서 다른 해석)를 한 것이 있는데, 이는 총론의 차이라기 보다는 세부적인 논의과정에서 북한이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큰 준칙은 만들어 졌지만, 구체적인 논의에서 모두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따라서 만일 후진타오 주석이 5개 안을 건의한 표현은 이 건의에 대해 북한이 어떻게 화답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고 정리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정철:** 일단, 중국 쪽에서는 건의의 형식으로 나왔고, 정창현 선생님께서는 이를 북측이 전폭적으로 수용했다고 보시는 것 같다. 어쨌든 두 분 말씀은 북중관계의 큰 틀의 새로운 버전과 가이드라인이 나왔다는 것에 공감하시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런 가이드라인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이전에 이것을 만들 수밖에 없는 어떤 불 소통이 있었다는 얘기이며, 양 국 내부에서 북중관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반증일수 있다. 중국과 북한 내부의 논란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좋겠다.

**이희옥:** 북한이 2009년 4월에 ‘광명성 2호’ 를 쏘고, 5월에 핵실험을 했는데, 그때까지도 중국 내부에서 북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것 같다. 2006년 9월 북의 핵실험 이후에 유엔 결의안으로 가는 과정들에 있어서 당시 대체적인 기류는 중국 외교부가 북한 문제(북한체제의 변화 등)와 북핵문제를 분리하지 않은 상태로 대응했다. 그러나 북한의 행동이 중국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가지고 있지만, 북한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순간, 중국의 영향력이 없어지는 딜레마에 빠지게 돼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 지도부에서 2009년 7월에 북한문제 처리에 대해 대논쟁이 벌어지고, 두 가지 큰 회의가 있었는데, 하나는 당 중앙 외사영도소조(수장: 후진타오)라는 내부회의이고, 또 하나는 재외공관장회의이다. 여기서 북한문제에 대한 대토론회가 있었고, 7월 말쯤에 북한문제와 북핵문제를 분리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정리되었다고 보인다. 북핵문제가 결국 북한 체제에 대한 불안정을 가져오게 하는 것을 막아야겠다는 생각, 북중관계를 안정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필요성에 따라, 8월에 우다웨이 부부장이 가고, 9월에 다이빙궈 국무위원이 가고, 10월에 원자바오 방북 등 일련의 과정에 따라 매우 안정적으로 회복된 측면도 있다.

이번 정상회담도 그러한 과정, 북중관계의 우호적 분위기 속에 진행이 된 것이라고 본다. 천안함 사건도 북중문제나 다자간이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 남북 간의 문제, 동북아 지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하위변수로 처리하고자 하는 시도는 아마 지난 7월 이후 중국의 대북한 정책 기조 속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정창현:** 북한이 2009년 4월에 ‘광명성 2호’ 를 쏘고, 2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 중국은 북에 대해 평강히 접근해 했다고 보인다. 그리고 북한 내부에서도 북중관계, 북미관계, 남북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다. 북한은 내부적으로 핵실험을 통해서 북은 일정하게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했다고 평가 하고, 상당부분 안보위기를 낮아지게 했다고 보았다. 이에 기초하여 북중관계, 남북관계, 북미관계를 일단 전면적으로 풀어나가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8월에 클린턴 방문, 남북정상회담 제의, 북중 간 공개-비공개 접촉들을 활발하게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남측은 정상회담 제의에 호응하지 않았고, 미국은 6자회담과 관련하여 한미공조를 통한 전략적 인내라는 프레임을 강조했다. 그러자 2010년 2월 이후에 북측 내부에서 또 다시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는 3월에 대외 강경입장을 내세웠던 사람들이 물러나고, 북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키려는 입장이 등장했다. 외부에서 보기에 친중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수단에서는 강경보다는 대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손을 김정일 위원장이 들어준 것 같다. 그것에 기초해서 새롭게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전면적으로 토의가 돼서, 이번 합의에 북측의 공식입장이 표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따라서 앞으로 적어도 몇 달간, 북중관계가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에 북한은 전략적인 북중관계를 만들고, 이에 따라 대외관계를 풀어 나갈 것이다.

**이정철:** 남북관계 보다는 북중관계의 우세 입장이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이희옥:** 2009년 7월에 중국의 입장 변화 이전에, 북한의 변화도 있었다고 본다.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관철되기 전에 '광명성 2호' 발사 이후 이미 북한내부에서 대외노선 입장이 정리되고 이러한 북한의 논의 결과가 중국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본다. 외부에서 대북제재결의안에 의해 북한이 대화국면에 나온 것이 아니라, '광명성 2호' 발사로 대외정책의 수단을 거의 사용한 북한이 향후 정세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고, 중국도 이를 받아서 토론한 것 같다. 북중 간 이해의 일치가 있었을 것이라는 말이다.

**이정철:** 일부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2차 핵실험이 중국에 대한 불만으로 감행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희옥:** 5월, 6월의 북한의 행동은 하나의 패키지로 볼 수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광명성 2호' 발사에 대한 중국의 태도에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부분'에서 중국이 그런 대응을 하지 말았어야 했고, 이에 대한 북한의 불만이 있었을 것이다. 5월, 6월에 중국은 북한체제와 여러 가지 북한 문제에 대한 내부적인 입장 정리가 안 된 상태였고, '광명성 2호'와 2차 핵실험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태도는 1차 핵실험 때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관성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인다. 2차 핵실험이 북한이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정철:** 원자바오 방북으로 중국이 대북정책의 입장을 정리한 이후에도 북한 내부에서 남북관계 우세론자들과 북중관계 우세론자들 사이의 이견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정리된 것이 올해 3월이라고 보시는 것인지.

**정창현:** 북중관계와 남북관계의 동시적 발전이라는 기본적인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나, 경협문제만 본다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다. 2000년에 들어와서 중국이 나진항 개방을 위해 여러 노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북측이 이를 계속 거절 해왔다. 북한이 남북경협을 중점적으로 진전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했던 것이다. 그러나 올해 2월에 들어와서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적어지고, 금강산문제에 대한 남측의 문제제기가 여전하고, 관광 재개 가능성이 없어지니까, 북한이 경제난의 돌파구를 개성과 금강산에서 그 중심축을 상당부분 나진항으로 바꾸고 있다. 결국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경협을 발전시켜 나가자 결정한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금강산과 개성문제는 그 비중이 상당히 약화될 것이다.

**이정철:** 북중관계가 남북관계 및 여러 가지 변수에 반응하고 있고, 북한 내부의 대중정책과 중국의 대북정책이 상호 영향 속에서 변화해왔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정 주간님께 한 가지 더 질문하자면, 이번에 천안함 사건 때문에 방중이 연기되었다고 보시지는 않는지.

**정창현:**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문제는 작년 12월에 정리되었고, 때문에 연초부터 방중설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더 빨리 방중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북측의 입장에서 보즈워스 방북 이후에 미국의 반응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반응이 없었고, 미국의 반응을 기다리다가 방중이 늦어진 것이다. 원래

북의 입장은 북미관계의 일정한 가닥이 잡히면, 방중을 함으로써 6자회담을 촉진하고자 것이었다. 그러다 6자회담 재개 후 방중하는 것(6자회담을 개최로 북미관계 개선을 견인)으로 입장이 바뀌었다, 다시 방중을 통해 6자회담을 재개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첫째는 방중으로 천안함 문제나 한미공조문제를 깨야 할 필요성, 두 번째는 미국이 과연 6자회담에 나올 수 있을 것인가(6자회담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타진 필요성이다. 중국을 통해 북한의 완화된 입장을 밝힌다고 해서 미국의 움직임이 있을 것인가를 보았을 때, 3월까지만 해도 북한 내부에서 방중은 6월 이후라고 생각했는데, 6월에 방중을 한 것은 국면을 바꾸려는 북의 의도, 그리고 미국의 움직임을 끌어낼 수 있는 ‘중국’ 카드를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다.

이러한 내용은 조선신보(5월 8일자)의 해설에 잘 나와 있다. 두 가지 부분을 이야기 하고 있다. 하나는 2005년과 2006년에 북중 간 9.19 공동성명 이행 문제와 중국의 대규모 투자 및 원조 등 두 가지 부분에 대한 큰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중국이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두 차례의 핵실험과 국제관계의 변화가 복합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봤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조선신보(5월 8일자)가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기사화를 했다. 이런 부분이 이번 회담에 북이 어떤 자세로 임했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중국 활용론이다. 최근 세계 경제부분에서 중국 의존현상이 굉장히 커졌고, 또한 중미 간 관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북중관계가 밀착이 되어야만 결국은 미국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정철:** 이번 방중은 북중관계를 통해 북한이 미국의 움직임을 견인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고, 또한, 큰 틀에서 9.19와 중국의 경제원조라는 두 가지 합의와 역사적인 북중 간 합의라고 볼 수 있다는 말씀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다. 그렇다면 이번 방중의 핵심이 핵문제와 경협, 두 가지 틀이라고 볼 수 있는데, 5개항에서 각각에 대해 특이한 부분이나 주목할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이희옥:** 5개항 자체는 별로 특이점이 없고, 고위급 교류, 전략적 소통, 경협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 이다. 전략적 소통을 강화한다는 것에 대해, 국내언론에서 국내문제를 함께 논의하면서 의견차이가 있었다고 보도했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6자회담이나 정세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를 넓혀가자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경협을 확대하는 것은 전략적 소통의 강화 속에서 그동안 북중 간 경제교역이 지원에 가까운 형태였는데, 이것을 변화시켜 북중 간 경제내용을 구조화시키고 산업 연계를 확대시키는 쪽으로 발전시키면서 경제 긴밀도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결국,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면서 정치적 소통을 강화시키는 것과 경제의 긴밀도를 강화하는 경제와 정치의 두 트랙으로 볼 수 있다.

**이정철:** 전략적 소통에 대해 내정간섭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이희옥:** 전략적 소통이라는 것은 국내외 정세의 중대한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이다. 국내문제가 대외 정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포괄적인 소통이라고 볼 수 있다. 교류의 규모가 확대되다보면 인식의 차이나 불협화음은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구조화 한다고 보면 된다.

**정창현:** 대체적으로 비슷한 생각이다. 북중 정상회담에서 오고간 이야기를 토대로 분석하면, 전략적

소통의 강화라는 것은, 중국이 북한의 ‘광명성’ 발사에 대해 제재의 입장을 취한 것. 중국입장에서 보면, 핵실험 30분전에 통보했던 점 등 2006년도 이후, 북중 간 전략적 문제에 대해서 소통이 잘 안되었던 경험들이, 중대한 외교문제에 대해서 소통을 강화하고 공동대응의 방향으로 하자는 것에 대한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고 본다.

경제부문에서는 기존의 일방적인 지원에서 북측의 표현을 빌리자면, 호혜공영의 원칙(남북경협에서는 유무상통의 방식) 즉, 서로가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경제협력을 확대해나가자는 것에 대한 합의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나진항이 상징적인 형태로 등장하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태평양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이고, 북에서는 인프라 구축과 부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호혜적 성격을 띠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동북3성과 북한 북부지역의 경제협력 관계는 서로간의 이익을 취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것이다. 또 하나 특징으로, 과거에는 중국 기업이 북에 들어갈 때, 권리만 취득하고 인프라 및 부대 시설의 부족으로 실제로 개발하기는 어려웠으나, 이번에는 중국의 공공자본으로 북한 내에 인프라 구축을 원자바오 총리가 약속 했다. 그걸 통해서 중국기업들이 여러 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는 형태가 될 것이다. 과거 남북경협을 할 때도 정부의 공공투자가 들어가서 인프라 구축을 하고, 기업이 들어갔는데, 그 부분이 남북관계가 막히면서 안 되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이를 대체, 인프라를 구축하고 중국 기업이 들어가는 협력형태가 앞으로 가시화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희옥:** 덧붙여, 중국 측에는 어떤 이익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나진항을 통해서 동해로 진출하는 것 일 텐데, 현재 중-러관계가 역사상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역사적 피크를 지났다고 본다. 즉 중-러 사이의 군사적 신뢰부분에서는 경쟁과 협력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로서는 동해를 확보하는 항구가 필요할 것이고, 국제적으로 보면 그 지역을 둘러싼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지정학적 이익을 선점하는 효과에 대한 경쟁력이 있는 것이다. 또한, 중국 국내적으로는 2012년에 끝나는 후진타오 체제는 국내정치적 핵심적인 어젠다인 동북진흥 개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하고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퍼포먼스를 드러내야 하는데, 이러한 동북지역 개발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시장에 기초한 투자, 중국 기업의 북한 진출로 시장메커니즘에 기초한 이익 발생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이정철:** 추가 질문 드리면, 중국의 인프라 구축의 형식이 직접투자로 이어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정창현:** 다양한 방법이 사용될 것이라고 본다. 첫째, 30억불 규모로 추정되는 대규모 대북펀드가 중국정부의 담보 하에서 조성된다는 것이고, 둘째, 동북진흥개발계획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분과 그 연장선상에서 북의 인프라 건설에 투자된다는 점이다. 세 번째, 중국기업의 합작 형태 진출이다. 이러한 세 가지 부분이 동시에 이루어질 가능성 있다고 본다.

**이정철:** 30억불은 중앙정부에서 만들 것이고, 동북진흥계획은 동북3성, 즉 지방정부 차원에서 북한과 교류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업차원의 투자가 동시에 들어가면서 경협이 구조화되는 전망을 말씀하신 것 같다. 개성 얘기를 조금 더 해봤으면 좋겠다. 북중협력이 남북경협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정창현:** 북은 남북경협을 아직 포기한 것 같지는 않다. 전략적으로 북중관계를 발전시키고, 북중 경

제협력을 다방면으로 확대하는 부분이 있지만, 6자회담이 열릴 경우에 4자회담이 열릴 것이고, 결국 남북대화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 것은 미국이 북에 요구하거나, 중국이 남측에 요구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북측 내부적으로 이명박 정부와는 대화가 안 된다는 결론은 이미 났다.) 그러나 더 큰 목적, 예를 들면, 6자회담이나, 평화협정을 위한 4자 회담 등이 열린다면 남측과 대화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은 이러한 대화의 연속선에서 금강산문제에 대한 논의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북한은 천안함사건이 발표되고, 6월 중순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6월 말~7월 초에 6자회담 국면으로 전환되길 기대하고 있다. 7월 전후에 6자회담 국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4월 초 합의했던 6자회담 프로세스가 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지금 구도에서 보면, 김정일 위원장이 방중했을 때 한반도 비핵화라고 표현되었지만, 북핵 폐기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밝혔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북한 내부적으로 이미 훨씬 전에 결정되었을 것이며, 북핵 폐기를 어느 시점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북은 4자 평화협정 문제에 대해 중국이 명확히 담보해야 한다는 조건을 중국에 제시했고, 그 조건으로 중국이 미국의 움직임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서 중국은 북이 이행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 담보할 것을 표방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중미 대화, 6자회담, 4자회담으로 발전하고, 이후에 남북대화 필요성이 제기되면, 결국 금강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이 미래에 대한 북한의 낙관적인 예측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정철:** 그러면 6자회담 얘기가 나왔으므로 6자회담에 대한 전망들을 말씀해주셨으면 좋겠다.

**이희옥:** 현재 6자회담에 대한 가장 적극적 행위자는 어디일지 찾아보자. 미국은 한미관계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남한은 의지가 없는 것 같고, 북한은 평화협정의 진척이 없기 때문에 다른 담보가 없으면 나갈 수 없다. 현재의 국면에서 결국은 중국이 6자회담의 모멘텀을 살려 나가야하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후진타오의 외교적 성과로 다자주의의 확대(상해협력지구, 아시아지역주의 관리자라는 입장 등)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러한 맥락에서 6자회담을 살려갈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의 대중 압박이 높아지는 현실 속에서 미중관계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고, 미중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북한이라는 명확한 카드를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6자회담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북중 간 예비회담에서 대체적으로 북핵 폐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전달받았을 가능성이 크고, 중국이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명확한 내부의 방침이 섰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북미 접촉과 예비회담과 6자회담 간 프로세스를 과감하게 가동시킬 수 있는 것이고, 중국이 이러한 모든 전략적 수단을 가지고, 5월 23일에 열리는 미중전략-경제대화에서 이러한 카드를 가지고 갈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경우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한계에 대해 미국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인 것이고, 북한으로써 6자회담 복귀는 상당한 양보에 기초 한 것이고, 그 경우에 중국이 줄 수 있는 것을 명확히 계산하고, 이익의 균형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정철:** 조선신보에 보면, “각 측과 함께 6자회담의 재개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 용의가 있다”고 나오는데, 이를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정창현:** 두 차례 핵실험, 6자회담의 부진, 핵 군축협상 등에서 북이 핵 폐기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모아지는 것 같다. 북은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최소한의 먹는 문제 해결, 경제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성, 후계체제를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0년에 커다란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안보문제는 중국활용을 통해 승부수를 던졌고, 이것이 지속되면 북한 경제의 중국경제 예측문제가 있을 것이고, 주체의 자립경제 노선의 논란을 감수하면서 까지도 전면적인 북중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북한이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북핵 폐기 문제는 6자회담 프로세스의 전 과정 속에서 북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과제들 속에서 중국에 상당부분 위임한 것으로 보인다.

**이희옥:** 핵 보유국 지위문제는 북중 양국이 핵 보유국 지위를 요구하면서 6자회담에 나올 것이라는 한국과 미국의 예단이 있었던 것 같다. 북한 입장에서는 큰 틀에서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평화협정 문제에 대해 어떤 것을 담보할 수 있다는 유연성을 보일 것이고, 이에 따라 평화협정 논의를 이어가고자 할 것이다. 또 하나는 전제조건-제재를 푸는 문제에 대해서도 유연성을 발휘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비핵화 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동시 진행하는 것 등 6자회담을 가로막는 요소들에 대해 대담한 협상을 시도하고자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정철:** 핵 보유국 지위는 대미 외교적 협상력이고, 실제 중국과의 협상에서는 북한이 핵 폐기 의지를 확인시켜주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다.

**정창현:** 핵보유 지위의 문제는, 되돌릴 수 없는 북핵 폐기와 핵보유 기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되돌릴 수 없는 북미관계 정상화는 누구도 담보할 수 없고, 이에 대해 중국에 책임을 넘겼기 때문에 중국의 부담이 생긴 것이다. 만약에 평화협정이 깨지는 상황에서는 북한 내부적으로 자신들이 가진 핵기술을 통해서 핵능력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정철:** 외교 논의로 넘어가겠다. 북중 간에 북중미의 협상구도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는 데, 현재 한국이 천안함 사건으로 중국 때리기를 하다가 역풍을 맞았는데, 이러한 한국의 외교행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희옥:** 중국의 외교 행태에 대한 오해와 외교적 판단과 정치적 판단이 섞인 데서 나오는 오류라고 할 수 있다. 북한문제에 관한 한 중국외교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 문제는 공산당 대외연락부가 주관하고 있는데, 관례대로 한국 측에 통보하지 않은 것이다. 당 서열 9명을 동시에 만나는 것도 김정일 방중 시 정착된 관례이고, 비공식 방문의 의전을 통보하지 않는 것 역시 관례대로 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정부가 무리한 요구를 할 필요가 없었던 부분인데, 그럼에도 이러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천안함 사건으로 고조된 국내 여론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이 중국 측에 들어가면서 외교적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한다. 한국 외교부는 신중론이었던 것 같으나, 이 문제를 관리해야 할 통일부가 오히려 더 문제를 삼는 상황이 돼 버렸다.

현재는 중국 요인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커지고 깊어졌다. 한국에는 한미공조를 통해서 모든 문제들을 풀 수 있다고 하는 낙관론이 팽배해있다. 우리 언론에서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대척점으로 보는 관점이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정철:** 우리 외교부가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아닌가.

**이희옥:** 외교부든 통일부든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정무적 판단과 외교적 판단이 섞이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되고 그 안에도 부처 간 불협화음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은 사건이 생기고 나서 이를 관철할 능력과 의지가 없었고 결과적으로는 기회비용만 증가하는 꼴이 되었다. 한국외교의 대중국정책의 부정형성을 드러내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정철:** 다음으로 한국을 제외하고 북중미 합의를 이끌어 내는 구도를 북한이 의도하는 것 같은데, 사후에라도 남북관계가 회복될 여지는 없는 것인지.

**정창현:** 말씀드렸듯이 6~7월 중 6자회담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우리 정부는 상당한 고민이 생길 것이다. 6자회담에서 성과를 내야만 적극적 대북정책, 남북대화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입장을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변화를 모색해야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이다. 이는 8~9월 중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움직이면 한국정부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따라서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상당한 부처 간 갈등과 내부적인 혼란이 예상된다. 또한, 하반기에 남북대화가 북으로부터 제기 될 텐데, 한국정부가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대화의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이명박 정부 내내 남북대화는 어렵게 될 것이다.

**이정철:** 미국 외교부가 중간선거 이전에 외교적 돌파를 할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런 상황을 변화시킬 힘, 미국을 끌어들이 힘은 중국에 있다고 보시는지.

**정창현:** 6자회담이 열렸을 때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합의나 북측의 행동을 유인할 수 있다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는 하반기로 갈수록 남한 입장에서 북한관리론이 등장하고 우세할 것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북은 중국에 상당부분 위임했는데, 이것이 과연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이것이 5~6개월의 과정 속에서 결과를 내지 못할 경우에 북한이 틀어질 수도 있다고 본다. 북은 충분히 대화의 의지를 보였음에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핵실험이나 남북관계의 군사적 위기를 다시 조성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10월, 11월 정도에는 한반도에 군사적 위기가 다시 조성될지, 아니면 6자회담과 남북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될 것인지 결론이 나올 것이다.

**이희옥:** 남한 정부도 이런 상황을 지속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일 것이다. 6월에 지방선거가 있고, 6·15공동선언 10돌도 있고, 한국 전쟁 60돌도 있어서 우리 정부 스스로 동력을 만들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런 일정이 끝나면 어떻게든 반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한미관계를 보더라도, 한-미 공조는 잘 되고 있다고 하지만 레토릭(수사) 성격이 강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8·15광복절 등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새로운 형태의 국면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달 24, 25일로 예정된 미-중 전략·경제 대화가 그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일단은 미중간의 문제가 논의 되겠지만, 작년 7월의 대화가 물꼬를 텃던 것처럼, 북중 간의 문제 등도 논의되면서 천안함 사건과 북한문제에 대해 현실적으로 분리처리를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한국정부는 따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한국정부는 6자회담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다. 결국 방향의 전환이

라는 것은 6자회담에 끌려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국면을 스스로 주도해 나가는 형태가 되는 것이 크다고 본다. 결국 6자회담이 언제 시작되던지 간에 국면의 전환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이정철:** 이러한 상황이나 국면의 전환들이 신냉전, 즉, 북중러 vs 한미일의 대립구도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정창현:** 현실적으로 신냉전의 부담은 가지려 하지 않을 것이고, 중미 대화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본다.

**이희옥:** 만약에 신냉전의 상황이 된다면, 이득을 보는 세력과 손해 보는 세력이 있을 것인데, 행위자들 중 이익을 누리는 세력이 없다. 미중 협력구도에서 글로벌 이슈를 풀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다. 북한 입장에서 냉전관계에서 보다는 북미 간 관계가 개선이 되는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남한도 냉전관계에서 한중관계와 한미관계를 관리하는 외교적 능력이 없다.

**이정철:** 이런 측면에서 중국도 북한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정창현:** 이번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은 마지막 해외순방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언론 노출을 감수하면서까지 방중을 강행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현재 북측 내부는 상당히 유동적이며, 잠재적인 강경파들이 존재하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그들의 입장이 전혀 반영 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북중 협상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북한 내부적으로 강경파가 득세하거나, 매우 강한 강경노선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북중 정상회담을 왜 이렇게 강행했을까에 대해 생각해 보면, 후계체제 문제와 세대교체 등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북중관계의 혈맹과 전략적인 관계들이 후 세대, 후계체제에 이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할 메시지를 던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희옥:** 중국에서는 북한의 후계문제를 한 번도 거론한 적이 없다. 사후적으로 인정하는 형태이다. ‘대대손손’이라는 표현은 새로운 표현은 아니고, ‘세대를 넘어서’ 라는 표현은 김정일 위원장의 발언을 통해 나온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중국도 5세대 지도부가 2012년에 등장하고, 북한의 후계체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부들의 교류도 잘해야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북한과 중국, 서로가 내정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레토릭의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후계문제를 북중 간 논의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냥 ‘알았다’ 의 정도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정창현:** 중국입장에서는 북핵문제와 북한문제의 분리라고 볼 수 있다. 작년 전반기에 외교부가 전면에서 북한 문제를 다뤘었고, 작년 전반기 이전까지는 북중관계는 왕자루이 혼자 담당했다는 얘기도 있다. 그러나 전통적 북중관계에 따라, 당 대 당 외교를 확대하는 형식으로 결정되고, 대북정책이 바뀌면서, 북측에서도 김영일을 국제부장에 앉힌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한 문제를 분리한다는 것은, 북이 선택한 노선-북한이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후계문제, 선군노선, 강성대국 등의 문제-에 대해 중국이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북중경제협력이나 남한과의 관계를 좀 더 원만하게 할 수 있다면, 동북지역

의 경험들을 충분히 참고하여 개방노선으로 가기를 제안하고 있고, 북이 이를 일정부분 수용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정철:** 이번에 원자바오가 개혁개방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한 것에 대한 의미는?

**정창현:** 개혁개방이라는 단어를 김정일 위원장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중국공산당 영도 하에 이룬 개혁개방의 성과’ 라고 말했다. 더불어 김정일 위원장의 위업으로 강성대국을 건설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북한문제 분리의 방향이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언급한 것은 최근 북한 내부의 변화된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측으로서는 경제협력 문제를 논의하면서, 북측 내부의 시스템의 변화나 개방노선에 대한 마인드를 가질 것을 제안하는 취지라고도 볼 수 있다.

**이정철:** 중국이 제시하는 경험의 조건들에 대한 적극적인 화답이 있었다는 말씀이라고 정리해볼 수 있겠다. 그럼, 후진타오가 방북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희옥:** 북의 방북 요청에 대해 후진타오가 유쾌하게 초청을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남북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방북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반반인데, 당장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정창현:** 결국 하반기 정세 즉, 6자회담의 성과에 따라, 후진타오가 북의 변화를 자신의 성과로 확실히 할 수 있다면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정철:** 북중 간에 당 대 당 관계가 쪽 유지 되었는지.

**이희옥:** 시진핑이 방북했을 때, 당 대 당 관계를 강화를 하자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는 교류의 측면에서 국가 대 국가와 함께 당 대 당 관계를 개선하자는 측면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한중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한국이 요청한 것일 수도 있다. 이번 방중에서 외교부의 행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사실과 관계없이, 국민방문/ 사적방문/ 비공식 방문 등에 따른 관례에 의한 것이다. 사실, 많은 정보들을 중국 혼자서 관리하기는 어렵고, 중국 정부는 정보공개에 대해서 투트랙(공식/비공식)을 사용하는 것 같다.

**이정철:** 북한이 김정일 위원장 귀국 전에 합의 내용을 보도한 것은 어떤 의미인지.

**정창현:** 중국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정철:** 한국정부는 천안함 관련한 중간조사 발표와 선거 때까지는 강경기류로 갈 것이라고 보이는데, 북중 정상회담이 천안함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지 등을 포함해서 정리해주시면 좋겠다.

**이희옥:** 현실적으로 천안함 문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관련 당사국을 설득하

고, 유엔 안보리 회부, 유엔에서의 논의 등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외교적으로 의제를 통일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천안함 사건은 남북관계의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로 보고, 다자 간 협의 틀을 분리해서 사고하는 것이 전반적인 흐름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이분법적으로 보기보다는 큰 틀에서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철:** 천안함 사건을 국제문제화 시키려는 한국정부의 의도는 국제정세의 흐름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희옥:** 한국이 이런 형태로 주도해 나갈 경우에, 결국 코리아 패싱(한국을 제외하고 논의가 진전될)이 나타날 가능성도 큰데 이러한 상황은 막아야 할 것이다.

**정창현:** 결국은 다자협력구도의 형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에 중국이 일정한 양보를 가지고 6자회담을 제기했을 때, 천안함 사건을 가지고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본다. 북측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안보와 경제협력을 중국을 통해서 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줬다. 그것을 통해서 체제 안정성 문제와 후계체제를 확립하는 문제 등을 해결했고, 대외적으로 경제적 실리를 얻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정철:** 건의와 합의의 부분에서 선생님들 사이의 이견이 있었는데.

**이희옥:** 북중관계 준칙에 대해서 후진타오의 북중관계 강조점 5개를 건의를 한 것은 북한이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외교정책으로 확정이 된 것이다. 북한은 북 나름대로의 북중관계 준칙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서 북한의 요구대로 그 내용들을 바꾼다면 북한이 주장하는 새로운 제안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이번에 발표한 5개 항은 중국의 대북정책 5가지를 ‘후5점’으로 건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이 내용에 대해 대체적으로 동의했다는 것은 후진타오가 건의한 북중관계의 다섯 가지 준칙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부분적으로 김정일이 다른 해석을 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북한이 내부적으로 합의해서 이러한 건의를 받을 것인지 말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철:**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견이 있음에도 중국이 원안을 발표했을 가능성은 없는지.

**이희옥:** 한국의 외교적 절차와 행태가 다르기 때문에 형식의 차이 때문에 오는 오해이다. 북중관계는 각국의 입장에 대해 사전에 협의를 한다. 또한, 비공식 방문이고 당 대 당 방문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이정철:** 당 대 당 그 자체도 과정이다. 언론에서 당 대 당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측들이 난무하는 것이라고 보인다. 또 다른 질문을 드리자면, 이번 김정일의 방중 시점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희옥:** 이번 방중 길은 굉장히 복잡했다. 방북과 만남의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인데, 어떤 방식으로든 다 만났고, 관련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만날 수 있게 했는데, 이것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최고의 의전이라고 생각한다.

**정창현:** 후진타오 주석이 제안한 다섯 가지 준칙이 2월에 왕자루이가 방북하면서 북중 간 합의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미 조율이 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합의라고 본다는 것이다.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후진타오, 김정일 위원장의 모두 연설 및 그 과정에서 나눈 이야기들로 표현될 것이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이후에 협의를 통해 만들어지고 이행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회담의 포인트는 후계문제와 관련해서 북이 내부적인 자율을 얻었다는 점과, 중국으로부터의 단기적 지원의 길이 열렸다는 점이다. 북이 6자 회담에 대해 중국에 많은 부분을 양보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본다.

**이정철:** 북한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경험문제를 보면, 중국에서 시장논리에 입각해서 기업투자가 있을 것인데, 앞으로 북한이 개혁개방이나 경제전반의 변화도 예상할 수 있을 것인지.

**정창현:** 북한은 자원, IT, 관광 세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그러나 시장의 확대라는 문제와는 약간 다르다. 북한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지역에 공장을 만들어 가공해서 본국으로 보내는 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까지 합의가 된 것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단 가이드라인이 정해졌고, 구체적인 부분은 실무선에서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이희옥:** 이번에 후진타오가 북에 대해 안정유지, 경제발전, 민생개선이라는 평가를 했다. 후진타오의 강조점은 안정유지에 있는데, 위기관리를 잘했다는 것이고, 경제를 발전시켰다는 것은 북한의 화폐개혁 등을 두고 경제발전의 의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민생을 개선했다는 것은 중국의 핵심적인 화두인 민생을 잘 했다는 것이다. 손문은 “민생이 곧 사회주의이다” 라는 말을 했고, 중국 전역에서 이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 이는 개혁경제를 사회주의의 방식으로 성공적으로 해냈다는 북한에 대한 최고의 찬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정철:** 바쁘신 가운데 아침부터 코리아연구원 전문가 좌담회에 참석하시어, 심도 깊은 토론을 해주신 두 분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KNSI**